로컬플러스

권재민 부안군 부군수 하서면 방문 소통행정

권재민 부안부군수가 지난 12일 하서면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담소를 나누며 소통행정을 펼쳐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권 부군수는 13명의 하서면 직원들과 일일이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전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희망과 꿈의 고을인 부안군에 취임해 다소 힘도 들고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열정을 갖고 모든 일에 매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조직일체감 형성을 통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권 부군수는 또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로서 내부 동료 공무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부안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몸을 사르는 청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 부군수는 고려말 이규보 선생의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人生之限)'을 인용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사항을 적절히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근 하서면장은 "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부군수의 따뜻한 방문에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 부안발전에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학교 논 벼베기 체험 실시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안광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5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논 벼베기 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조성한 '학교논(한솔초교 외 4개소, 고무화분 400개)'에서 자란 벼를 베고 홀테 등 전통기구를 이용하여 수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도심 속 학생들에게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생기 시장은 "어린이들이 모내기와 벼베기·탈곡 등 친환경쌀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쌀의 소중함과 농촌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정읍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이번 수확한 쌀은 도정작업을 거쳐 각 학교로 전달해 아이들이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읍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2016년 정읍시민의 장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시민의 장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별 공적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를 마쳤고,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3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부문별 심사와 2차 전원위원회의 단계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의 공정성을 기했다"며 부문별 수상자를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장은 이맹규(78)씨 ▲공익장 박영춘(63)씨 ▲새마을장 이승애(70)씨 ▲효열장 배상민(64)씨이다. 시는 8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결과 모두 5개 부문에 15명(문화장 4명, 공익장 7명, 새마을장 1명, 산업장 1명, 효열장 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제시 분야별 성과분석 보고회

2017년도 시정운영 위한 주요업무계획… 부서별 역점시책 등 선정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11, 13일 이틀간에 걸쳐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7년도 시정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행정지원국·사업소, 안전개발국, 직속기관·실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담당급이상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소장들의 총괄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들의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와 중점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김제시가 민선6기 3년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와 효율재정 운용을 위한 공모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소장이 직접 중심이 되어 분야별 업무계획을 구상했다.

또한, 내년도 정책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부서별 역점시책과 국·소단위 핵심과제를 각각 선정하여 국·소간, 부서간 3.0체계 구축으로 새만금중심도시 중점과제를 비롯하여 시민 공감형 신규시책 등 총 440여개 사업을 치밀하게 분석 점검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금년도 사업을 알찬 마무리를 통해 연속성 있고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줄 것과 국가예산 국회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 및 전북도와 공조,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7년은 소통과 협업, 개방과 공유의 3.0정립을 통해 전 직원이 타부서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 기탄없는 의견개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존재의의를 항상 염두해 두고 창의적으로 시정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시장 이건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자매도시인 서울 은평구 여성친화정책에 전파, 상생발전과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위한 선진현장 방문

자매도시 은평구와 상생협력

김제시(시장 이건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자매도시인 서울 은평구 여성친화정책에 전파, 상생발전과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3일 은평구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40여명이 김제를 방문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환영식과 상호인사, 김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특강에 이어 김제명소인 벽골제와 아리랑문학마을 견학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특강을 맡은 김홍기 김제시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친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사례로 공원 재정비를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사례를 통해 김제 여성친화조성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 참석자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다.

김제시는 부영 1,2차 아파트와 지평선어울림센터로 둘러쌓인 요촌근린공원 일대를 여성친화테마마을로 조성하고, 공원내 조도개선과 산책로, 미니 공연장, 숲속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여성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지킴이 활동과 동구밖 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은평구는 2013년 김제시와 자매도시 우호협약을 맺은 도시로,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김제의 우수 농특산품 판매지원과 양 도시간 행정,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여성친화도시 선정 1년차 도시이다.

최일동 김제 여성정책과장은 "자매도시 은평구의 지평선의 고장 김제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66개 지자체로 이들은 도시계획과 개발, 공원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파악 여성, 가족 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체류형 관광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장 점검

김생기 정읍시장, 내장산 문화광장 개발사업 현장방문

김생기 시장은 지난 12일 사계절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현장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아침 8시부터 양심묵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 내장산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포함된 내장산문화광장개발사업과 내장 에코편백파크 조성사업, 일주문~내장사 탐방로정비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김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건립과 효율적인 문화광장 시설 재조정 활용, 세계적 단풍명소 내장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커뮤니티지원센터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 할 것을 지시했고 ▲문화광장 재조정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레이아웃 계획을 수립할 것, 인근 정읍천과 부전천 합류지점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자갈을 포설해서 가족 단위 자연천변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장산 단풍이 가뭄에 메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단풍이 들 수 있도록 점적관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것과 ▲우화정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물에 잠긴 징검다리를 높일 것과 함께 ▲오는 15일과 16일 2일 간 열리는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정읍에 맞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기반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장산을 축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 자연생태관광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중학생 행복채움 금융교실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지부장 유금용)는 '행복 채움 금융교실'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금융기초상식' 교육을 지난 12일 지역 내 상서중학교와 줄포중학교 1학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복 채움 금융교실은 농협은행이 해마다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업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기부활동으로 부안군지부는 이날 현장직업체험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현장 견학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해주며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우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유금용지부장은 "행복 채움 금융교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상식을 키워주고,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공노조 위원장에 최일호씨 당선

단독출마 89% 높은 득표율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명석)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제7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서 현 최일호 위원장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89%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최일호 위원장 주요약력으로는 제6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책 공약으로는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제도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6급 완전 근속승진, 직급평등화 개선, 상급단체와 연대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향상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달 1일 위원장취임식을 갖고 제7대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내 부당합과 불합리를 타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인 최일호 위원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읍시 공무원 노동조합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대변자로써 함께하고 발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백마고지 육탄용사 故안영권 하사 추모제

이건식 시장, 나병문 시의회 의장 비롯 150여명 참석

김제시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는 지난 12일,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안영권하사 전공 기념비에서 산화 64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이건식 시장, 나병문 시의회 의장을 비롯,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 유가족, 시민 150여명이 참석하여,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추도사, 조시낭독, 유족헌사, 살풀이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한 이후 고향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박영봉 회장은 추념사에서 "안영권 하사 64주기를 맞아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포탄을 몸에 감고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진 용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의 고귀한 뜻을 계승할 때"라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안영권 하사님이 불굴의 투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철저한 안보의식과 대응태세를 갖추고 사회화합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탄탄대로의 국력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안영권 하사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중부전선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와 함께 결사대 자원, TNT, 수류탄을 몸에 묶고 적의 토치카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1952.10.12)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 3용사를 삼군신으로 명명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백마고지의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제목의 글로 애국애족의 귀감이 된 이들의 무훈을 기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족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한국형 창작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이 15일 오후 2시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작지만 큰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번 공연은 기존 배우들이 몸을 활용한 '신체 마임극', 테이블 위에서 간단한 소도구를 활용한 '테이블 연극' 형태를 가지고 선보였으나, 김제공연에서는 새롭게 관객들과 호흡하며 공연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도구를 활용한 '오브제 연극'과 다문화 언어를 활용한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 특히, 연극적 상상력에 재미있는 볼거리를 더한 연출 기법을 도입하여 만든 공연으로서 가족 뮤지컬로 손색없는 내용으로 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제=곽노태기자